



충성대신보



▲ 창설 제52주년을 맞은 육군3사관학교가 창설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빛날 '명문사관학교'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창설 52주년 기념식 개최**



개교 52주년을 맞은 본교는 지난 10월 15일, 충성연병장에서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기간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52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교 창설 52주년을 자축함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부여된 임

무를 완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학교 장병과 사관생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초청 인원 없이 학교 장병 및 사관생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 부대 약사 보고 ▶ 축전 낭독 ▶ 표창 수여 ▶ 기념사 ▶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 학교 장병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체력단련과 더불어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날 박필수 중령 등 8명의 간부가 개교기념 유공자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도 축전을 보내어 개교 52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지난 52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소임을 다해 온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에 매진하여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지난 1968년 강하고 용맹스러운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개교한 이래, 지난 52년간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를 양성하여 배출하였으며, 이순진 대장(前 합참의장) 등 5명의 대장과 192명의 장군을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명문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

난 세월 동안 학교에서 배출된 정예장교들은 지금도 전·후방 각지와 주요 정책부서에서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는 지난 50여 년간의 노력으로 오늘의 명문 3사관학교를 만들어냈듯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각자 제 위치에서 학교발전과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소명 완수에 매진함은 물론, 명문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인 고성진

지면 안내

- 02 학교소식 | 군환경연구센터 KOLAS 인정 획득
- 03 학교소식 | 리더십 심포지엄 최우수상 수상
- 04 기획취재 | 두림아스카외(주) 박성백대표
- 06 생도광장 | 추천명화 · 5부회 소개
- 07 오피니언 | 사설 · 충성대 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 · 명문기를 찾아서
- 11 동문소식 | 동문발전제언 / 정경조
- 12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사진제공) 병장 김요한
 병장 이무상
 일병 변준연

본교 군환경연구센터 KOLAS 인정 획득

화학·수질 분야의 화약류, 중금속 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軍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군 유일의 환경 전문 연구기관인 학교 군환경연구센터가 지난 9월 9일, '화약류와 중금속 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되어 학교장(소장 장달수), 군환경연구센터장(중령 한종훈)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구로서 국가표준기본법과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국제표준(ISO/IEC 17025) 및 국내표준(KS Q ISO/IEC 17025)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구이다.

이번에 센터가 획득한 KOLAS 인정범위는 화학-수질분야의 화약류 3개 항목(TNT, RDX, HMX)과 중금속 4개 항목(Cu, Cd, Pb, Zn)으로, 앞으로 센터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미국, 유럽 등 104개국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군 사격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화약류의 경우 센터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됨으로써 군내 환경 및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8년 3월 1일부로 창설된 센터는 군부대 사격장 내 중금속 오염확산 방지와 전·평시 장병들의 식수 확보방안 등 군 환경문제와 관련된 5가지의 과제에 대한 정확한 현상 측정과 연구, 환경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군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종훈 센터장(환경공학과 교수)은 "KOLAS 인정으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된 만큼 센터의 연구결과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검사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과 연구를 통해 군 환경오염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검증하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환경연구센터는 군 사격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정화기준을 법제화하고, 위해성 평가 적용 사격장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환경 우수부대 선정 등 육군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미래 국가 환경보전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위 이지수**



▲ 장달수 육군3사관학교장(소장, 좌에서 5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교 내 위치한 군환경연구센터에서 열린 '화약류·중금속 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활약을 기대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위해 영천시에 성금 1,000만원 기탁



▲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학교장(소장 장달수) 등 학교본부 주요직위자 3명은 영천시청을 방문하여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영천사랑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지역 내 소외된 계층과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천사랑기금'은 학교 장병 및 군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매달 2천원씩 자율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어 영천시청에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6.25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성금을 직접 전달한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육군3사관학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민을 돕기 위해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성금 750여 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사관생도들 또한 올해 초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소정의 성금과 위문품(KF94 마스크)을 마련하여 각각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영천시 방역대책본부에 기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무관 이경희

육군3사관학교 · 아세아항공직업 전문학교 학술교류 협정 체결

지난 10월 13일에 육군3사관학교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학교장(소장 장달수) 등 6명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측에서는 예비역 장군인 원홍규 학장(3사 16기, 제29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사관생도와 대학생이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군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간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성장·발전하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교육·연구·문화·체육 등 공동관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적·물적·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원홍규 학장(3사 16기)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교가 함께 미래를 선도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기존의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27개의 대학과도 지속적으로 학술교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군악 연주회 개최

학교는 코로나19 극복과 태풍 피해 복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학교 전 장병과 사관생도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찾아가는 군악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장병이 한 곳에 모여 관람하지 않고 군악대가 직접 학교본부와 생도대(훈육대), 교육지원대대를 순회하며 중대 단위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관생도 및 전 장병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연주회를 관람하였다.

공연은 모듬북 공연으로 시작해 인기 만화·영화 주제곡, 최신 가요 연주, 성악, 사관생도 및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군악연주관(중사진) 김한우를 중심으로 5명의 군악대원의 모듬북 공연은 군악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사관생도 및 장병들의 자긍

심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였다.

또한, 계명대 성악과 출신 박시욱 상병과 서울대 성악과 출신 강정훈 일병, 군악대 소인조 밴드 보컬 박지훈 일병 등 재능 있는 군악대 장병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교감하며 연주회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공연을 관람한 이상현 생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이 이번 공연으로 해소된 것 같다"며 "사관생도로서 학업에 정진함은 물론, 심심단련에 매진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하여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준비한 군악대장(김명훈 소령)은 "이번 연주회가 학교 전 장병 및 사관생도에게 활력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군악 활동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령 김명훈·상사 김경희**



▲ 전 장병과 사관생도들을 응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군악연주회에서 군악대원들이 모듬북 공연을 하고 있다.

자랑스런 3사 · 하나되는 3사, 2020 충성제

개교 52주년을 맞아 2박 3일간 진행

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사관생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 동안 '2020 충성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방역지침 준수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부 행사만 진행되었다. 비록 푸드트럭, 가족·친구 방문, 외박 등은 없었지만, 학교의 전통 축제인 만큼 생도들이 최선을 다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먼저 14일 오전, 생도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체육대회로 충성제의 막을 올렸다. 족구, T-ball, 줄다리기, 발야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에서 각 중대가 기량을 뽐냈고, 오후에는 체육대회의 꽃인 TOP-SQUAD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6중대가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야간에는 성도 광장에서 영화 '라라랜드'를 상영하며 충성제의 첫째 날이 저물어갔다.

2일 차인 15일 오전에는 학교 창설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창설 기념 행사 간에는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 수상자와 충성대문에 작품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수여 받았다. 창설 기념 행사 후 생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던 가든파티를 진행했다.

군악대의 연주와 더불어 호국정의 가을 정취 속에서 시작된 가든파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오후에는 10km 마라톤을 시작으로 단체줄넘기와 7인 8각 경기까지 진행된 후에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체육대회 결승전과 3·4위전, 계주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생도들은 끝까지 패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상자 없이 체육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오후에는 각 중대의 응원전, 태권도 시범, 응원부 시리우스와 그룹사운드 카이거의 축하 공연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생도들은 각 중대의 개성이 드러나는 응원을 보며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이번 충성제는 예년과 다르게 교내에서 생도들만 참여하여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느 해와 비교해 손색없을 정도로 생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생도뿐만 아니라 동분과 가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하게 개최되길 기대해본다. 56기기자생도 권정우 57기기자생도 황희진



▲ TOPSQUAD 경기



▲ 10km 마라톤 대회



▲ 태권도 시범단의 격파 시범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 참가, 최우수상 수상

위국헌신의 리더십을 배우는 사관생도

지난 9월 14일에 열린 2020년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가한 본교 사관생도들이(5개 팀, 16명)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은 각 군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이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은 '위국헌신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발표 없이 사전에 제출된 PPT자료만으로 심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현규·황준희·김진기 생도(이상 56기)는 '전장 리더십'이라

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민경주·박다애·한성엽 생도(이상 56기), 김태범·안운비·정동주·분창우·송민주 생도(이상 56기)는 각각 '독립군 및 광복군의 리더십', '국난극복의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권도형·배재섭 생도(이상 56기)는 'WE국 헌신'이라는 주제로 UCC 동영상상을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현규 생도(56기)는 "위국헌신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리더십을 함양하는 사관생도가 되겠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진기, 황준희, 주현규 생도



▲ 우수상을 수상한 민경주, 박다애 생도



▲ 우수상을 수상한 정동주, 안운비, 김태범, 분창우, 송민주 생도



▲ 장려상을 수상한 배재섭, 권도형 생도

제19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장려상 수상



▲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수상자들(이소연, 이석훈, 박설희)

한반도 평화와 미래 번영의 주역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육군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공동주최한 제19회 대학생안보토론대회에서 본교 57기 박설희, 이석훈, 이소연 사관생도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안보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역사 및 6.25 전쟁, 남·북, 한·미, 북·미 간 직면한 동북아의 안보정세 등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사이버 위협 및 환경·보건 문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도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전에 발

표자료를 등록하여 당일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토론 및 발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형식·내용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더불어, 참가 생도들은 행사 전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콜린파월 전 미국 국

무부장관의 화상 특별대담 시청을 통해 6.25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유엔 참전국 사관학교 교수·생도들과 함께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날 1분과 박설희 생도(57기)는 '6·25 70주년의 의의와 한반도 세계 평화', 4분과 이석훈 생도(57기)는 '사이버 위협과 국방안보의 미래', 6분과 이소연 생도(57기)는 '한국전쟁과 글로벌 시대 육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안보토론대회에 참가한 박설희 생도는 "6.25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래 한반도 평화와 미래 번영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식견을 함양하는 사관생도가 되겠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대위 이세훈

제19회 충성대문에 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충성대문학생작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10월 15일, '제19회 충성대 문에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학교 창설 52주년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사관생도 3명만 참석했다. 올해는 총 345명이 응모해 일반부에서 분야별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생도부에서 분야별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이 선정되었다.

일반부는 수필 부문 '별빛, 영화미소, 1996' (송영기), 단편소설 부문 '초코파이' (5861-11부대 박민수 병장)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생도부에서는 시 부문 '특등사수' (57기 김형우

생도), 수필 부문 '아궁이' (57기 변인진 생도), 단편소설 부문 '탄피' (57기 배재섭 생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육군3사관학교장상장과 기념패가 지급되었으며 작품은 연 1회 발행되는 육군3사관학교 교지(忠誠臺)에 실릴 예정이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응모 작품이 많아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창작의 열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56기기자생도 유동엽 57기기자생도 신동철



창의적인 기술과 정성으로 최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두림야스카와(주) 박상백 대표



두림야스카와(주)의 박상백 대표는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광주석산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남대학교 금속공학(現 신소재재료공학)을 전공하고 1989년에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후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발전된 업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지금의 두림야스카와다. 1993년 설립한 두림야스카와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도장 및 실링 자동화시스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장로봇시스템을 전문으로 공급한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 10여 개국에 우수한 품질 설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기술과 정성으로 최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 뒤에는 직원들에게 시종일관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끈기와 열정을 불어넣는 박상백 대표가 있다. 시종일관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박상백 대표와의 화기애애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육군3사관학교 기획취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고 초·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기계공고나 상업고를 진학 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로였으나, 대학을 가야 한다는 누나의 조언으로 인분계를 갔습니다. 그 덕분에 인분교인 광주석산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를 1989년에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이나 지방공장을 선호하는 당시의 공대생과 달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계기입니다. 중소기업에 5년 정도 근무 후, 업종은 같으나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조금 발전된 일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게 지금의 두림야스카와입니다.

Q 두림야스카와가 어떠한 기업인지 생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93년 설립한 두림야스카와는 도장로봇시스템 제작, 공급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장 및 실링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0여 개의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장 작업은 특성상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피도 불 보호 차원의 기본적인 개념을 넘어 도료를 최소로 사용하면서도 감성 품질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장 작업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정교하고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를 자동화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흡입 및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있고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도장 작업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Q 현재 본교뿐만 아니라 군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하시는지와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황인권 장군과 광주석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라 잘 알고 있었고, 황인권 대장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육군3사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장학금, 도서관 시설 등 모든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군에 대한 기부나 장학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인권 장군이 생도대장 시절 서울에서 술 한잔하는 기회가 있어 만났는데, 생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도서관 건립에 기부를 요청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 간부 후보생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이기에 망설임 없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첫 인연으로 군에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 복무를 어디서 하셨는지와 군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군 복무를 강원도에 위치한 22사단 56연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1년씩 교대로 전방과 후방을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병에서 부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로 군 복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군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제가 후방에서 신병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촌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수제비를 편죽손으로 편다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 시절 휴일 사역하고 간식 시간이 됐는데 고참이 수제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시기에 저는 어리둥절하여 먹기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먹지 하고요. 수제비를 편죽이라고 불렀던 저로서는 순간 제비로 착각했었던 게 저를 지금까지도 웃게 하는 기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분대장, 하사로 전방에 근무 당시 근무 지역이 통일전망대 인근이라 통일전망대로 수학여행을 왔던 고교생들의 위문편지를 받아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재밌게 읽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국내 도장, 실링 시스템의 시장점유율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두림야스카와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A 저희는 고객의 의뢰를 받는 시점부터, 현장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을 통해 설계·제작·조립·품질·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공정과 시스템을 사내에서 OLT라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품질과 시스템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통해 원격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항상 최상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사의 생산효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업무가 국내 엔지니어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고객사별로 맞춤형 시스템의 공급과 실습 가능한 교육 시설의 확보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 우리 회사의 장점입니다.

Q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를 목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A 기업이란 지속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좋은 시스템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및 미국, 인도의 10여 개국에 진출해 나가 있지만 이는 국내 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장은 어렵

습니다. 그래서 세계 로봇 3대 메이커인 일본 야스카와 기업과 2016년에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야스카와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공략중입니다.

Q '두림오픈데이'라는 회사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는 1년에 1~2회 정도를 주요 고객(자동차 사)들을 초청해 저희 제품 및 기술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진행했던 '두림오픈데이'는 고객이 아닌 전직원들의 가족 및 지인들을 초청해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회사를 알리는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한 계기는 1993년 5명, 매출 5억으로 시작한 소규모 회사에서 우리 분야 국내 1위 기업, 매출은 1000억대로 성장했기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Q 대표님께서 강조하는 가치들과 그 가치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신입사원들을 조직 문화에 동화시키는지?

A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협업입니다. 선택한 일과 선택한 것들을 서로 협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은 있었지만, 저는 선택보다 그 선택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게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어느 날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협업이 되지 않습니다. 협업이 안되는 이유는 사실 실력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성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3개월간 신입사원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1~2년 차에는 큰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일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3년 차부터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로 두고 신입사원들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Q 생도들도 장교가 되면 부대를 운영하는 일종의 경영을 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과 군 경영은 다르지만 리더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도들이 미래를 위해 꼭 학습했으면 하는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A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자신보다 구성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는 군, 회사 모든 분야에 리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인 식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훈련과 학업에 지쳐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배움의 기초가 되고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생도시절을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식견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책입니다. 책을 가까이 한다면 미래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한 시간씩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훌륭한 벗과 스승을 평생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호국간성이 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은 시대가 변했고 세대 차이가 커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임관 후 야전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장교와 용사가 서로 느끼는 존재는 다를 것입니다. 특히나 장교는 모든 부분에서 구성원들을 아우르고 리딩해야 하는 힘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병은 리더가 만능이길 바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발 앞서는 식견을 갖춘 'Servant leadership'을 잘 갖추어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57기 기자생도 장석수

미담 사례 **사관생도들의 숨은 미담 사례**



어느덧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사관생도들에게도 많은 심리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사관생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훈훈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숨은 미담 사례를 발굴해보았다. 명예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접수한 미담 사례 중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부부의 무인발권기 사용을 도와 준 57기 사관생도 배재섭(6중대)

배재섭 생도는 지난 8월 18일, 경주시 외버스터미널에서 노부부를 보았다. 당시 노부부는 경주에서 대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구 터미널의 정확한 위치도 몰랐으며 서툰 무인 발권기 조작

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난감한 얼굴로 무인 발권기 앞에서 서성이다 젊은 사람들이 발권할 땐 다시 비켜주시기를 반복하였다.



이를 목격한 배재섭 생도는 평소 대구를 자주 오간 경험을 떠올려 노부부와 얘기를 나눈 결과, 도착지가 동대구터미널임을 알 수 있었고, 차표 발권을 도와준 후 버스 플랫폼까지 안내해드렸다. 배재섭 생도는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무인 발권기가 누군가에게는 낯설어 난

감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비로 외국인의 승차권 매표를 도와준 56기 사관생도 신수정(3중대)

신수정 생도는 지난 8월 17일, 외국인 부부가 지하철 매표창구 쪽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먼저 다가와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얘기를 나눈 결과 외국인 부부는 인천공항이 목적지였고 직접 옆에서 도와드렸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현찰이 없어 신수정 생도는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대신 구매했다.

고마워하던 외국인 부부는 추후 계좌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지만, 신수정 생도는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플랫폼까지 배

웅해 드렸다. 신수정 생도는 "누군가는 도와줬을 일이라 당연하게 생각한다. 다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선뜻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위의 사례들은 과거 생도들이 하계군 사훈련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하계 정기휴가 중 생긴 미담 사례이다. 쉽게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생도들은 '국민의 군대'라는 본분을 잊지 않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행동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다른 타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도움을 준 사람은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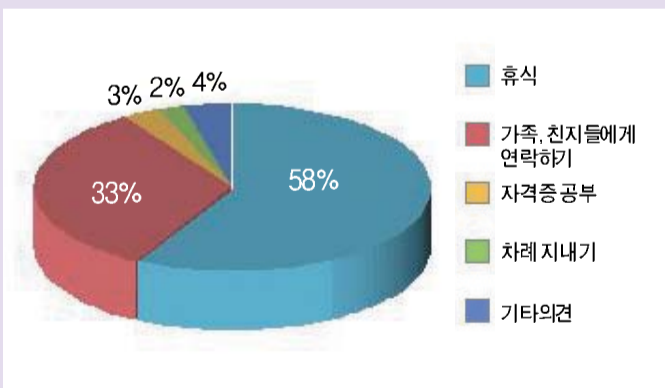
앞으로도 사관생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값진 경험을 한 번 만들어보자.

56기 기자생도 **김성혁**
57기 기자생도 **이용탁**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이 생각하는 추석 기간 의미 있었던 활동



먼저, 가장 많은 생도들이 이번 추석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답했다. 휴식에 투표한 A생도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하여 5일이다. 연휴 기간에 일반학기 중 쌓였던 피로를 해소하고 다가올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생도들이 연휴 기간에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학기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추석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낸 방법'이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기간 생도들이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도들이 생도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추석을 의미 있게 보냈는지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다. 총 900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결과, 휴식(58%), 가족, 친지들에게 안부 연락(33%), 자격증 공부(3%), 차례 지내기(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오랜만에 가족 및 친지들에게 연락을 하

는 것이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도 특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명절에 모이는 가족과 친지를 그리워하는 생도들이 많았다. 이 항목에 투표한 B생도는 "명절이 되니 다시 한번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처럼 명절에 못보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짧은 연락이라도 하는 것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도들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많은 표를 득표하진 못했지만, 자격증 공부(3%), 차례 지내기(2%)가 그 뒤를 이었다. 우선 자격증 공부 같은 경우, 점점 다가오는 임관일을 대비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공부하겠다는 생도들이 많았다. 다음 항목인 차례 지내기에 투표한 인원들은 명절이라는 기념일에 맞게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고 그 활동 또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에는 '배달음식 시켜 먹기',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체육대회 실시', '자체적으로 E-SPORT와 같은 게임 대회 열기' 등과 같은 재미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상에서 추석 연휴 동안 생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을 알아보았다. 이번 추석은 생도들이 내부에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가 더욱더 활기찬 생도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57기 기자생도 **황선관**
57기 기자생도 **박군호**





아웃포스트



군인의,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전쟁영화

산으로 둘러싸인 전초기지. 4배가 넘는 적. 비협조적인 주민들. 그곳에 발령받아 매일 같이 총격을 받아내야 한다. 언제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샤워할 때도 안전한 곳은 없다. '방어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방어해내야 한다.

8월 19일과 9월 12일. 이틀에 걸쳐 본교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영화 '아웃포스트' 시사회를 개최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육군3사관학교 전 장병들은 국내 관객들보다 먼저 '아웃포스트'와 만날 수 있었다. 아웃포스트란 전초기지라는 뜻으로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군사 기지라는 의미다.

영화는 9·11 테러 직후 시작된 미국-아프간 전쟁 중 2009년 10월 3일에 있었던 캠페시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당 전투는 CNN 기자 제이크 태퍼가 동일한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

기도 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명예훈장'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전투다. 책과 다큐멘터리가 전투의 사실을 다루고 있다면, 영화는 전투의 현장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123분의 러닝타임 동안 관객은 왜 이곳에 기지가 세워졌는지, 왜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혹은 전투원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의 사실들은 알지 못한다. 관객들이 알게 되는 것은 단 하나, 전투 그 자체다. 샤워를 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날아오는 총알에 절반 한 시간 동안 등장인물들과 함께 불안에 떨게 되고 후반 전투장면에선 마치 극장 내부까지 먼지와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현장감이 넘친다.

감독은 실제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보다 전쟁의 진인함과 참혹함, 전투의 치열함과 현장감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한다. 영화 속 실존 인물인 클린트 로메샤 하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 받는다.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는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도 있으니 놓치지 않길 바란다.

안보위협이 다양해짐에 따라 군의 역할도 폭넓어지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그러한 사실이 피부에 와닿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영화를 보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포노 사피엔스

지은이: 최재봉

태초에 하느님이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다면 스티브 잡스는 포노 사피엔스를 창조해냈다.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신인류, 바로 포노 사피엔스다.

한국은 2008년 스마트폰의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돌입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 체제를 형성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문명 속에서 디지털 소비 혁명의 주역으로서 신인류들의 역할을 일러 발전적인 포노 사피엔스가 될 것을 강조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 세대, 우리는 그야말로 디지털 문명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카톡, 알람 설정과 더불어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SNS로 일상을 업로드하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하는 등의 스마트한 활동을 지향한다. 스마트폰의 중요성은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의 일상을 상상해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고 주변인들과 소통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스마트폰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유튜브 시장의 활성화와 유튜브의 등장은 디지털 경제 시장의 면모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과시간이 끝난 19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매

체"로 유튜브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상파 방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달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아마존,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시장과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배달 앱의 성장 또한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스마트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며 발전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모순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저자가 이 글을 저술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전하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에 주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미 스마

트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혁명의 시대를 혁신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요구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청년들이 발맞춰가야 할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의 발전적인 미래를 저지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문명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명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한다. 판이 바뀐 것이다. 세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정확히 알고 이를 수용하며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우리는 적극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두려움에 주저하며 새로운 문명을 거부한 집단은 늘 쇠퇴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혁명의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56기 기자생도 이선빈, 57기 기자생도 이경미



5부회 소개

동기회

동기회는 사관생도들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생도자치회이다. 생도들은 동기회가 담당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에 지면을 통해 동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동기회는 56기, 57기 동기회가 존재한다. 동기회장생도와 동기부회장생도를 필두로 총무부장, 친목부장, 앨범부장, 기념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년중 가장 큰 축제인 충성제를 비롯하여 지환(반지)사업, 졸업앨범사업, 출타 버스 대여 등 여러 사업을 맡고 있는데 각 직책별로 주력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

우선 동기회장의 주요 업무는 동기부회장을 제외한 각 직책 인원들의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훈육대장, 훈육장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기부회장의 주요 업무는 생도들이 안전하게 출타할 수 있도록 출타버스대여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예도 사업을 주로 맡았다.

총무부장생도는 생도들에게서 동기회비 거출을 담당하며 동기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총무부장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친목부장생도의 가장 큰 사업은 충성제다. 충성제와 관련된 일들을 총괄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기수별 기수티·체육복, 외부 및 내부간식사업을 맡고 있다.

앨범부장생도는 졸업앨범업체 선정, 졸업사진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생도대 행사 간 사진 촬영도 주로 앨범부장생도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

기념사업부장생도는 지환(반지)사업, 기수조형물을 담당하며 생도들의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 초빙강연 시 기념품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기회 인원들은 졸업하고 임관한 후에도 주로 동기회장으로 선출되어 동기들을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동기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20-2차에도 많은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도들의 활력과 열

정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도 생도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동기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56기 기자생도 윤서규
56기 기자생도 박다애



▲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나연(앨범부장생도), 권정우(기념사업부장생도), 인운비(총무부장생도), 문창우(친목부장생도), 이진호(동기회장생도), 정동주(동기부회장생도)

사설

귀울음(耳鳴)과 코골기(鼻鼾)의 교훈

이명

비한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기준', '척도', '잣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양철학이 자연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 485~414, 그리스 시대 Sophist)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는 지금까지도 회자 되는 금언(金言) 중 하나이다.

이는 원래 인간중심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말이다. 요즘 같은 복잡다단한 세상에서는 21세기 소피스트(세변론자)들에 의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세상을 재단하는 하나의 척도인 것처럼 더욱 기승을 부린다. 특히, 이를 정당화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근본 없는 말들까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우리 고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小兒嬉庭 其耳忽鳴 兒然而喜 潛謂隣兒曰 爾聽此聲 我耳其嬰 奏鞞吹笙 其團如星 隣兒傾耳 相接 竟無所聽 悶然叫號 恨人之不知也 嘗與鄉人 宿鼾息磊磊 如嘆如嘯 如嘆如嘯 如吹火 如鼎之沸 如空車之頓轍 引者鋸吼 噴者豕狗 被人提醒 勃然而怒曰 我無是矣 嗟乎 己所獨知者 常患人之不知 其所未悟者 惡人先覺

아이가 뜰에서 놀고 있는데, 귀에서 갑자기 소리가 울려, 아주 기뻐하며 곁에 있는 아이에게 '너도 이 소리가 들리나? 내 귀에서 새 소리가 나고 피리를 불고 생황을 켜는 것이 별과 같다.'고 하였다. 곁에 있는 아이가 귀를 기울이며 맞대도 끝내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소리를 들은 아이가 가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한탄했다. 일찍이 시골 사람과 함께 잠을 잔 적이 있었다. 코를 골며 숨 쉬는 소리가 쌓이고 쌓여, 토하는 것 같고 울부짖는 것 같다. 또 탄식하는 것 같고, 흐느끼는 것 같고, 불을 불어대는 것 같고, 솥에서 물이 끓는 것 같고, 빈 수레가 갑자기 덜컹거리는 것 같았다. 끌어당기는 것은 툼을 꺾이고, 내뿜는 것은 돼지의 울음소리였다. 그 사람을 깨우니 발끈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아! 그렇다. 자기 혼자 안다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근심한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을 싫어한다.

위의 글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 중 일부이다. 원래 이 글은 잘못된 글쓰기의 예를 들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공감을 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思考)에 대한 경고(警告)의 메시지다. 우리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거나(耳鳴, 귀울음), 자기가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鼻鼾, 코골이)



이러한 것이 바로 이기적, 개인적 사고 즉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고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나 스스로가 내 눈앞의 기둥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연암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고 있다.

得失在我 毀譽在人(득실제아 휘예재인)

얻고 잃음은 내게 달려있고, 기리고 헐뜯음은 남에게 달려있다

지구 환경의 역습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

충성대 칼럼

소령 윤희 철인문사회학처 국제관계학 조교수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다양한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성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마스크와 함께 하는 일상이 익숙해지고, 연일 보도되는 바이러스 감염 전파 뉴스에 피로감과 안일함마저 느끼게 되는 시점이다. 만약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발병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경고하였다.

전염병의 발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고대 전염병의 발병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 어장 변화, 농작물 재배지 변화, 대규모 산사태 발생, 폭염 피해 증가, 태풍·호우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의 증가라는 코로나 19 못지않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 19를 비롯한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는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症, zoonosis), 즉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와 국제축산연구소(ILRI)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 식용, 산림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도 도시 생활, 기후변화 등을 감염병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팀은 중국 티베트 고원의 1만 5천 년 전의 굴리아 빙하에

서 28개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2016년에는 기후변화로 시베리아 동토가 녹아 순록 사체에 얼어붙어 있던 탄저균이 퍼져 유목민이 숨지고 순록이 폐죽음을 당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동토층이 녹아 사라지면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노출되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보다 더한 바이러스(전염병)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심과 감축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연구나 관심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국방부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가 약 5,9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의 1년 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국방부의 경우, 2019년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8,410톤으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상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27만여 그루를 심어야 상쇄되는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 2부제, 5부제 실시 및 '에너지 절약 추진 지시'에 기반하여 각 군별로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으로 1. 꼼꼼하게 분리수거 하기 2.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3.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4. 정량 배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에 동참하여 코로나 19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의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더 나아가 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사회 저명인사 칼럼

홍 규 덕(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사이에서 과연 한국이 균형외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균형외교를 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재 미·중 대결은 무역 분쟁으로부터 시작, 정치, 외교, 과학기술, 문화 및 군사적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혹자는 미·중대결은 이제 겨우 문턱에 들어섰으며 향후 30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1월 15일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2천억 달러를 추가 구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관계는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미·중간의 대결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미·중갈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5G를 석권하고 있는 화웨이 제품의 전면 사용금지 결정에 이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의 기술패권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 때문이다. 남중국해에 대해 미국이 자유항행 보

장을 요구하며, 항모전단과 호위함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개하며 이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초기 공해전 (Air-Sea Battle) 중심에서 후반기에는 국제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 (JAM-GC)으로 전환했다. 해·공군 중심에서 육·해·공 및 사이버 우주 등 5개 독립 전장에서 상호운영성을 강조하는 합동 전력력을 통해 중국의 A2/AD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승하여 다전장 영역전투 (MDO)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육군의 역할이 보다 세분화 되고, 기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 육군미래사는 28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육군 전술체대가 직접 전투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략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세계전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 일본, 호주 등 QUAD 국가와 여타 동맹국들과 전략적 연대를 통한 대중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중 갈등 사이에서 사람들은 역사적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노력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어니스트 메이는 『과거로부터 교훈』이라는 책자에서 인류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역사적 유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이 명과 청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중립외교를 칭송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일단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광해군의 전략적 의도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강홍립 장군의 후금 원정은 완벽한 실패이다. 1619년 4월 3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르후 전장에서 조총수들은 화약에 불을 부칠 수 없었고, 후금 팔기병들의 돌진에 수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투항 후 포로로 잡힌 조선군들의 애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보급품의 지원 없이 수일간 강행군을 거듭한 보병부대의 패전은 예고된 실패였다. 조명 연합작전은 끔찍한 패전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오늘날 우리 군은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군대이다. 특히 한미연합군의 연합작전 역량은 역사상 어느 동맹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미국 현역 육군대장 중 밀리 합참의장에 이어 서열 2위이며, 이미 3번의 참전 경험이 있다. 그는 선대로부터 가족 모두가 한국에 근무했던 가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만약 4번째 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다. 한미연합군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이며,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을 넘어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며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창출해야 한다. 일방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가 마치 자주적 역량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은 잘못된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은 이미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도 그만큼 성장했다.

최근 중국 군사과학원 소속 허레이 육군 중장이 70년 전 발생한 한국전은 최강 미군의 신화를 깨뜨린 전쟁이며 중국이 다시 한반도에서 싸울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는 낙동강의 신화를 기억하고 항전의 의지를 기리기 위해 영천에 터전을 잡고 출발했다. 개교 50주년을 넘어서는 지금까지 월남전의 영웅 이무표 대령을 필두로 수많은 아전 지휘관들을 배출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생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이다. 비록 중국에 비해 열세이지만 한미연합 전력이 확고히 유지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번영을 확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며 강력한 군사적 역량의 확보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충성대의 모든 생도들이 역사적 교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실천하길 기대한다.

우리 삶과 밀접한 유도무기



독자 투고

현종 훈(LIG넥스원 수석연구원)

우리는 삶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돈을 소비한다. 예를 들면 불과 전기 같은 생활의 필수 요소도 있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전자기기와 운송수단도 존재한다. 다른 반면으로 현재 대한민국 특유의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다. 바로 유도무기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예산이 반영되며 이를 통해 유도무기들이 배치 된다. 즉, 필수 품목의 페러다임을 대입하면 우리는 스스로 돈을 소비하여 유도무기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도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품목이다. 이런 의미는 현재 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더욱 와닿을 것이며 시간이 흘러 점점 일반 시민들도 동일하게 인식을 할 것이다.

유도무기의 사전적 정의는 “전자장치로 지령되거나 스스로의 기능에 의하여 발사된 후 침로나 속도를 수정하여 어떤 지정

또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으론 전술·전략 목적물을 다양한 유도방식을 통해 정밀하게 타격함으로써 적을 무력화시키는 무기 분야이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종류의 유도무기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래 무기들은 점점 국산 유도무기로 교체하고 있다.

유도무기는 발사 장비 플랫폼의 배치 위치와 표적의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첫 번째 종류는 지상발사 유도무기이다. 지상발사 유도무기는 발사차량, 고정형 발사대 등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하여 지상, 해상 및 공중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지대공(Surface to Air), 지대지(Surface to Surface), 지대함(Surface to Ship) 세 가지로 나뉜다. 두 번째는 함정/공중발사 유도무기로 함정 및 항공기 플랫폼에 장착되어 공중 유도를 통해 지상·해상·공중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공대지(Air to Surface), 대함유도탄방어

(Surface to Air Anti Missile), 함대함(Ship to Ship), 함대지(Ship to Surface)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수중 유도무기는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의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수중에서 유도되어 해상 및 수중 표적을 타격한다. 대표적으로 어뢰와 기뢰로 나뉜다. 각 종류에 따라 현재 전력화된 유도무기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유도무기 | 지대공 | | | 지대지 | 지대함 |
|--------------|---------------------|---------------------|---------------------|---------------------|---------------------|
| | 후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공(新公) |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天馬) |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天弓) |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공(現弓) | 단거리 지대함 유도무기 비공(比弓) |
| 공대지 | 대함유도탄방어 | | 함대함 | | 함대지 |
| 함정/공중발사 유도무기 | 중거리 GPS 유도무기 KGG8 |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海弓) | 단거리 함대함 유도무기 비룡(飛龍) | 중거리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海星) | 전술함대지 유도무기 해룡(海龍) |
| 수중 유도무기 | 어뢰 | | | | 기뢰 |
| | 경어뢰 정상어 | 중어뢰 역상어 | 중어뢰III 범상어 | 장거리 대잠어뢰 풍상어 | 자항식 기뢰 |

이런 다양한 유도무기는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선박의 최신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 즉, 무기로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여 마지막 결과물을 목적에 따라 형태만 다르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하여

금 유도무기에 적용된 기술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도무기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현재 대한민국 유도무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 정밀타격에 의한 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초고속화·장거리화·고위력화·조정밀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네트워크에 의한 동시·통합 운용을 목표로 발전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각 나라로 뻗어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업을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현재 세계 최정상을 달성한 제조업 강국이 되었으며, 얼마 전 가수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여 문화강국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삶과 밀접한 유도무기도 향후 동일한 행보를 통하여 무기 분야에서 한류열풍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유엔참전국가기념비 답사기 4화
황성 네덜란드군참전기념비

1950년 2월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싸우며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지켰던 네덜란드대대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은 강원도 황성으로 향해보았다. 황성참전기념공원 안에 세워진 '네덜란드군참전기념비'는 하얀 풍차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였다.



▲ 황성참전기념공원 내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전경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의 군사력은 매우 미약했다. 한반도의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는 가까운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구축함 한 대를 한국으로 급파했지만, 지상군 파병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유엔에서 지상군 파견 요청을 보내자 네덜란드 국내 여론은 파병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보병 1개 중대와 해병 1개 중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8월 11일 지원병 모집을 공식 발표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9월 9일 636명의 1개 보병대대로 편성된 네덜란드대대를 창설하고, 텐 오우텐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대구에서 현지적응훈련을 거치고 12월 11일 미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하고 재반격으로 전환한 미 제2사단은 1월 23일 원주를 탈환하였다. 사단에 비로 있었

네덜란드군의 용기와 희생이 빛난 황성전투 현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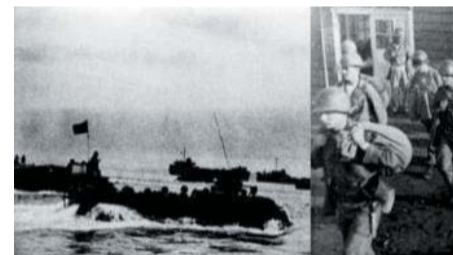
던 네덜란드대대는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 Up)에 참여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2월 4일 황성으로 이동하였다.



▲ 파병 작전 시기행진 중인 네덜란드대대(1950.10.14)

2월 11일 중공군은 2월 공세를 단행하였다. 서부전선에서 흥천으로 이동한 중공군은 아군의 측면과 후방까지 침투하여 최전방에 진출해있던 국군과 유엔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군단장은 전 부대 철수 명령을 하달했고 철수부대들이 적의 집중사격과 도로차단을 돌파해 네덜란드대대가 방어 중인 황성으로 물러들었다.

2월 12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네덜란드대대를 향해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 전투에 참전 중인 네덜란드대대원의 모습

이 공격에 네덜란드대대 본부 중대는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네덜란드대대는 이를 악물고 중공군에 대항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는 황성과 근처는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아군

과 그들을 따라 내려온 중공군의 총격전까지 벌어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일몰과 함께 피아 식별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방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중공군은 어둠을 틈타 네덜란드대대 후방을 기습공격 하였다. 적의 기습에



▲ 오우텐 중령(M.P.A. den Ouden, 1909.8.21.~1951.2.12.)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앞장서 대대를 이끌던 대대장 텐 오우텐 중령이 적의 폭격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대대가

치열한 방어전을 벌이는 동안 미 공수여단과 전차소대로 구성된 구원부대가 황성에 도착했고, 적에게 포위되었던 아군과 합류해 무사히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결국, 그날 밤 21시 대대본부는 혼란을 수습하였고, 전사한 대대장을 대신해 화기중대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하였다. 아군의 철수를 끝까지 지켰던 네덜란드 A중대가 황성 후방으로 후퇴하고, 다음날 새벽 B중대까지 황성을 빠져나가 새벽 4시에 원주비행장에 도착하며 황성전투는 종료되었다.

이들간의 전투에서 대대는 대대장과 군목 등 17명이 전사하였고, 37명이 부상, 차량 15대와 다수의 공용화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

덕분에 중공군의 공세는 무너졌고 전방에서 후퇴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그들 덕분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재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날의 승리 뒤에는 목숨이 위중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돌보며 끝까지 전투지휘를 했던 오우텐 중령이 있었다. 오우텐 중령의 전사는 6·25 참전 유엔군 중 유일하게 야전 지휘관이 실제 전투에서 전사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오늘날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이 바로 그날의 황성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참전기념비 하단에는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를 삼는 오렌지공의 역센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라고 새겨져 있다.

지휘관을 잃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끝까지 항전했던 그들의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참고자료

- 『6·25전쟁과 유엔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전문연구원)

우리고장 바로 알기(영천) -1

영천 지역의 유래 및 개관



이원석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이번 185호부터는 영천시 숨은 매력과 대표 자랑거리를 다양하게 보여 주기 위해 우리 고장 바로 알기(영천)를 총 5개 호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영천 지역의 유래, 개관을 시작으로 역사, 주요 인물, 지역 특산물 및 관광지 등에 대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담아 영천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영천 지역의 형성과정 및 유래

선사시대에도 금호강 원류지대인 영천에 사람이 살았다는 유적이 남아있다. 옛날 골벌소국(骨伐小國)이란 부족국가가 있었으며 236년에 아음부왕(阿音夫王)이 신라 조분왕(助賁王)에게 항복하고 절야화군(切也火郡)이 되어 도동화현(道冬火縣)을 그 밑에 두었다. 그 후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임고군(臨高郡)으로 개칭하였으며 신라 말기에는 다시 고을부(高鬱府)라 불렀다. 고려 초기에는 또다시 영주(永州)라 칭하였다.

태종(太宗) 14년(1414)에는 영주(永州)를

오늘의 명칭인 영천군(永川郡)으로 개칭하여 지난 2014년 영천 지명 개칭 600주년을 맞이하였고 1933년부터 연차적으로 5개면(내동·내서·완산·예곡·명산)이 통합되어 영천면이 되었다가 1937년 7월 1일 영천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 영천읍이 영천시로 승격되었고, 1986년 영천군 화북면 삼창출장소가 화남면으로 승격, 1987년 임고면, 와촌면의 일부 지역이 영천시로 편입, 1996년에 이르러 시, 군이 통합되었다. 현재까지 영천은 조례 제211호(1998년)로 교통과 대전동의 대전 및 서산을 통합하여 서부동으로 하고 명산동과 대전동의 오미를 중앙동으로 편입하며, 주남동, 봉작동, 영도동을 통합하여 남부동으로 조정하는 1읍 10면 5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영천 지역의 지리적, 생활환경 특징

예로부터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천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천시는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은 경주시와 포항시, 서쪽은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남쪽은 청도군, 북쪽은 청송군과 군위군이 접하고 있는 경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사통오달의 교통요충지이다 보니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쟁이 빈번했으며 김유신 장군과 중앙석굴 및 호국삼신, 황보능장 장군의 설화, 임진왜란 최초의 북성전투, 6.25전쟁 때의 영천대첩 등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또한, 200여 년간 평화를 가져온 조선 통신사 사행길에서 마상재와 전별연을 펼치며 제2차 집결지로서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영천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온대몬순 기후권에 속하며, 동·하절기의 기후가 현저히 다르다. 하절기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하고, 동절기에는 대륙성 기후로 인하여 한랭건조하여 한서의 차가 큰 편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12.25℃이며 최고 기온은 39.6℃(2016.8.13), 최저기온은 영하 20.5℃(1981.1.17)이고, 연중 강수량은 1,021.8mm이며, 연중 일조시간은 2,310시간이다. 여름철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자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강수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긴 탓에 전국에서 별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보현산 천문대에 가서 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비가 적게 오다 보니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의 당도가 높아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면적은 919.22km로 경상북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야 68%, 경지 16%, 기타 16%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과 대구선 철도가 동서로 뻗어 있고 경부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통과하고 있는 사통오달의 교통요충지이며 머지않아 대구선복선전철과 중앙선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생활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태백산맥의 정기를 담은 보현산과 서쪽으로 팔공산, 동쪽으로 운주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천(자호천, 고경천)과 북천(신령천, 고현천)이 합류하여 금호강 상류를 형성하고 있다.

세대 및 인구를 보면 세대수는 48,564세대, 인구는 외국인 포함 104,161(남자 53,497명, 여자 50,664명)이고 면적은 919.22km이다. 또 행정구역은 1읍 10면 5동 411통·리 1,667반이며 사업체수 8,730개, 종사자수는 43,586명이며 주택은 51,080호(보급률 105.2%)이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에서는 전장병의 영천으로 주소 옮기기, 인구교육 실시 등 최기분 영천시장의 최대역점사업인 인구증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알아보기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임상 의무교리장교 소령 김근량



독감은 독한 감기라는 의미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플루 또는 인플루엔자로 사용된다. 인플루엔자(독감)도 감기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감기란 2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을 통칭하는 한자어이며, 인플루엔자도 상부 호흡기계 감염을 유발하는 감기인 것은 맞기 때문이다. 감기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그 원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한정되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에 퍼지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주로 전파된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손으로 코, 눈 입 등을 만지지 않기과 같은 개인위생관리가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 국민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으로 적극적인 개인위생관리가 수행되어 2020년 초 인플루엔자는 2019년 동일한 시기와 대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인플루엔자는 1~4일(평균 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38도 이상의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기

침,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인플루엔자의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7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으며,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증



상 발생 후 10일 이상 전염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복용이나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를 받게 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 D형까지 구분된다. 이중 A형은 가장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H1~H18/N1~N11이 조합된 이론상 198가지의 아종이 있다. B형은 A형보다는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이며, 빅토리아형, 야마가타형 이렇게 두 가지 아종이 있다. 인플루엔자 C형은 A,B형에 비하여 출현율이 적고 일반적 감기의 증상만을 일으

킨다. 인플루엔자 D형은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며 주로 소, 돼지에게 전염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중 A형과 B형 바이러스의 항원에 따라 백신주를 결정하며,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가지, B형 바이러스 1가지, 4가 백신은 A,B형을 각각 2가지씩 예방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거의 발생하는 항원의 소변이와 효과 지속기간으로 인하여 매년 접종해야 한다. 예방백신이 예측한 항원 소변이와 일치할 경우 성인 기준 70~90%까지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9월에 시작되며, 접종을 받으면 약 5개월간 면역효과가 유지된다. 접종한 후 1주~2주 만에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4주 정도 후에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므로 겨울철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기 전 늦어도 11월까지의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과 관련하여 더욱 접종이 권고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에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며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찬 물수건을 대 주도록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울이 오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적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③ 울골 최씨 가문을 찾아서

지난 풍산 서애 류성룡 집안 방문에 이어서 이번 역시 영천지역을 벗어나 '명문가를 찾아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구 지역에서 명문가로 알려진 울골 최씨 가문으로 정했다. 울골 최씨 가문과의 인연은 내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지도교수님을 따라 3번 정도 방문한 인연이 있다. 이로 인해 인터뷰 일정은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에서 반야월 방향으로 가다가 북녘을 바라보면 거북을 닮은 바위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동·서·북 삼면은 산으로 에워싸이고 남쪽은 확 트여 대구 앞산과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칠계(漆溪)인데, 보통 '울골'이라고도 불린다. 학교에서 가면 대략 50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방문당시는 추석을 갖 지났기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을 감상할 수는 없었다.

'울골'은 대구 투어 코스에 들어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 대구에 사시는 분

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K2 비행장 옆쪽으로 대략 5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나타나는데, 상당히 아늑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다. 10여 년 만에 뵙는 최진돈 선생님은 고령이신데도, 명문가의 종손다운 기개와 여유를 여전히 지니고 계셨다. 1시간 정도 종가에서 내어 주신 차와 다과로 차담을 나누고 종택과 현판 등을 찍고 인터뷰를 마쳤다.



▲ 울골마을 백불고택

이 마을은 경주최씨 집성촌인데, 임진왜란 시 대구의병장이며 증 병조참판인 태동(台洞) 최계(崔誡) 공의 둘째 아들인 대암(臺巖) 최동집(崔東山集)께서 1616년에 터를 잡아 이제까지 그 자손들이 세거하였다. 그 가운데 대암 최동집, 백불암

(百弗庵) 최흥원(崔興遠), 지헌(止軒) 최효술(崔孝述) 선생 등 세분의 조선(朝鮮) 징사(徵士)와 백불암의 조부로서 오늘의 아름다운 울골마을을 꾸미신 광양현감 최수학(光陽縣監 崔壽學) 선생, 대산 이상정 선생의 고제이신 동계(東溪) 최주진(崔周鎭) 선생, 조선말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대구유림대표를 맡으신 칠호 최시교(漆許 崔昔敎) 선생, 독립운동으로 애족장을 받으신 금전 최종응(錦田 崔鍾應) 공, 거금의 독립자금을 회사하고 일제 말에 거금(현 시가 30억 원)을 들여 흥년에 시달리는 인근 백성을 구휼한 금강 최

두영(錦岡 崔斗永) 선생 등 여러 학자가 배출되어 벼슬보다는 대대로 가학(家學)을 지키고 학문이 뛰어난 곳이라고 영남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집안에는 많은 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옮긴 상태라고 들었다.

마을의 규모는 작았지만, 양동마을, 화회마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며, 특히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가문의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역의 명문가임이 확실하다. 근처 팔공산과 함께 묶어 가족들이 가을에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은 장소일 것 같다. **중령 최재호**



울골마을 사당

코로나 이후의 리더십과 대비태세

동문(同門)의 소리

정경 조(예비역 중장, 3사 11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는 10개월이 넘도록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2020년 9월 28일 오전 10시 기준(한국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3,298,142명, 총 사망자는 10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총 732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20만여 명이다. 미국인 누적 사망자 20만여 명은 미국이 최근에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참전 중 사망한 미국인은 베트남전이 47,434명, 한국전쟁 3,3739명, 이라크전 30,519명, 아프가니스탄전 1909명, 걸프전 148명이다.(CNN방송9)

코로나 19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치료가 어려운 감염병이라는 의학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전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코로나로 인한 주요한 환경 변화자료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은 비대면 사회로 전환, 의료 시스템의 변화, 위협 대응의 일상화, 국제 협력보다 국익 강조 등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인류는 잊고, 이제 대체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다”, “코로나 이후는 ‘언택트’ 산업이 유행하며 뉴노멀 시대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코로나 19에 의한 여러 가지의 변화 속에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한 예비역으로서 습관처럼 군에 관한 걱정이 앞서 몇 가지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 상황과 군 리더십

리더(Leader)라는 어휘는 서기 1300년 경부터 문헌에 등장한다.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숫자만큼 많다.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공통된 사항이 있다. 바로 목표 지향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 행사과정 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각 이론에 따라서 일정한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뜻한다.

군대에서 지휘통솔이란 남에게 영향을 주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행위이며, 지휘통솔의 구성요소는 지휘관(리더), 부하(집단구성원),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군에서 최소의 전투단위인 분대 인원이 9명인 것은 지휘자가 육성으로 지휘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피부를 맞대고 호흡하고 땀 흘리고 술선수범하던 리더의 행동은 현재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전장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꼭 챙겨야 하는 전우의 주검이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상황에서 군 리더십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리더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군 교육의 방향성

코로나가 주는 환경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다. 즉,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온라인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밀집 서비스들이 쇠퇴하고 있다. 군의 존재 이유는 평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군사 지식이 체질화되고 숙달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군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행동화로 실천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행동화 교육 환경을 코로나 환경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넓히거나 벌리고, 교육과 훈련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군의 최고 임무인 교육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상황속에서 전투력 보존과 군병역

코로나가 주는 환경변화 중 또 다른 변화는 의료 시스템의 변화로 개인 중심의 건강 개념이 사회 전체 건강으로 확대되고, 의료분야 국제공조 강화, 바이오 헬스,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위험에 대한 대응의 일상화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군 장비 중 밀폐된 환경에서 전투임무 수행을 하는 장갑차, 자주포, 탱크, 함정, 잠수함, 지하방커와 같은 많은 장비와 시설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투 또는 이와 준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전투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 시 격리조치를 위한 시설의 준비와 방역대책 등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다. 오랫동안 군 생활 복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나의 생명보다, 신앙보다 사랑하는 군의 후배들과 군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이러한 걱정의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군에서도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연구 등 많은 토의를 통해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동문들을 위한 복지협약체결 안내

지난 9월 16일 3사총동문회와 현대수(秀)리조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사총동문회 동문들의 여가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문들은 정규 회원가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총동문회 동문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3사총동문회

★시설을 이용할 동문들은 현대수(秀)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상세사항은 동문회 홈페이지(www.3sa.or.kr)를 참조



▲ 한동주 총동문회장(14기)과 현대수(秀)리조트 이사원 대표이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송정익(3사 11기), 제10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전 서예 부문 대상 수상



▲ 송정익 서예가(3사 11기)

송정익 서예가(3사 11기)는 지난 8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 시상식에서 한문 서예 추사체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 위원회가 주최한 공모전은 무궁화에 대한 애국심 함양과 무궁화가 지닌 기품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의 무궁화 사랑을 실천하여 이를 민족혼으로 승화시키는 목표하에 예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한 미술대전이다. 송 서예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8년 3개월 동안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완성한 추사체, 서예의 5체를 섭렵하고 전통 필법을 가미하여 최고의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아 왔다. 획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어느 체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필체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는 서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멋을 창안했다. 송 서예가는 최근 한·중·일 초대작가전에 초서로 쓴 사명대사의 시를 출품, 국제적인 서예인으로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3사총동문회

故 강현경 중위 49주기 추도식

지난 8월 27일 제30보병사단 부대 역사관 앞에서 故 강현경 중위(3기) 49기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사의 참석 없이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 정병식(3기) 동기회장, 제30보병사단장(소장 방성대, 24기)과 참모들만 방문하여 조화로 추모하였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제30보병사단장(소장 방성대)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故 강현경 중위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사 총동문회



▲ 故 강현경 중위는 1971년 문산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4명 중 3명을 사살하였으나 인타깝게 총탄을 맞고 순직하였다. 이후, 육군3사관학교 3기 동기회에서 정성을 모아 추모비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제 30보병사단 역사관 앞뜰에 설치되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 8. 25 ~ 10. 20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0억 1천만원(2020.9.30 기준)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정한기(육사#39 2(86), 이희범(육사#41) 2(392), 최완규(육사#44 2(17), 김호길(육사#48 2(43), 김태영(육사#51) 2(22), 두석주(육사#51) 2(152), 이우진(육사#54 2(54), 박기홍(육사#55 2(114), 조상근(육사#56 2(128), 변용성(육사#58 2(93), 손창희(육사#58 2(59), 이귀현(육사#58 2(87), 이주실(육사#58 2(72), 김대영(육사#59 2(160), 김진찬(육사#61) 2(57), 홍희종(육사#61) 2(89), 이한우(육사#63 2(17), 오민경(육사#65 2(32), 오보진(육사#65 2(10), 홍인재(육사#65 2(22), 이찬우(육사#68 2(32), 권성진(육사#69) 2(20), 한덕수(육군#26) 2(99), 남기웅(육군#29) 2(4), 고성진(육군#31) 2(28), 구희근(육군#32) 2(96), 서필석(육군#34) 2(4), 이두진(육군#35 2(10), 박홍렬(육군#37) 2(22), 송경재(육군#37) 2(116), 김재윤(육군#44 2(47), 김광윤(육군#44 2(42), 이종민(육군#44 2(15), 김나람(육군#46) 2(23), 정우람(육군#46 2(10), 김태룡(육군#48 2(34), 이세훈(육군#48 2(15), 홍현신(육군#48 2(13), 김민범(육군#49 2(16), 나상철(육군#49) 2(7), 윤정훈(육군#50) 2(19), 이선호(육군#51) 2(2), 최재호(육사#29 2(116), 최용식(육사#33 2(18), 이준수(육사#35 2(100), 윤경주(육사#46) 2(6), 임도현(육사#54) 2(95), 구주현(육사#55) 2(18), 박수영(육사#55) 2(10), 성현애(육사#55) 2(38), 강진선(육사#57) 2(4), 전어울(육사#58 2(46), 심정현(육사#58 2(26), 김소현(육군#46 2(11), 이희정(육군#49) 2(29), 이수영(육군#51) 2(6), 김형태(간부#22) 2(47), 강찬영(군종#61) 2(22), 최윤정(간사#38) 2(31), 송소연(간사#58) 2(12)

▶ **부사관**: 진장철 2(65), 이명관 2(3)
▶ **군무원**: 김인수 2(28), 류재은 2(184), 안영주 2(34), 양성우 2(56), 유정호 2(9), 정혜란 2(13)

■ 졸업·재학생도 부모 ('20.8.25~10.20 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 (졸업기수관계)
김종순(45 김성수 부) 4(36), 조경해(45 황정태 모) 10(755), 윤용상(48 윤희웅 부) 4(64), 성동모(50 성영환 부) 4(184), 안순봉(51 박상응 모) 20(200), 윤우상(51 윤형민 부) 2(80), 김현미(52 오치원 모) 2(37), 이영미(52 황성규 모) 3(265), 정정화(52 조강현 모) 2(331), 계석철(53 계민영 부) 100(150), 박일식(53 정필승 모) 4(106), 이영빈(53 오경철 모) 2(35), 조성숙(53 유영빈 모) 4(104), 윤영남(54 이지호 모) 10(215), 홍성은(54 홍동민 부) 1(226), 서원수(55 서지찬 부) 2(60), 유현구(55 유경운부) 2(122), 정원섭(55 정준영부) 2(111)

▶ **재학생 학부모** (입금자 성명)
(4학년) 김경남, 김왕기, 김종기, 고경옥, 도연정, 맹현주, 송학빈, 이종민, 신운영, 정희숙
(3학년) 강석곤, 강혜영, 구미라, 김근택, 김순말,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안운희, 양내서, 오유미, 이운주, 이학남, 임승찬, 정재현, 지마리아, 한성희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기간중 기부자가 없는 경우 기수 표시 없습니다.

▶ 1기 김용하 4(130), 남훈조 2(1,212), 임관택 2(70), 전수천 2(87), 최익환 2(72)

▶ 3기 한만우 1,000(1억원), 장영집 10(235)
▶ 5기 김일순 5(380)
▶ 9기 김현기 6(1,151), 권영호 10(365), 윤지환 6(114), 최병학 10(1,180)
▶ 10기 최영돈 500(7,000) ▶ 13기 문성목 20(130)
▶ 14기 김종환 2(46), 안호20(1,730), 이순진 30(600), 이용진 10(200), 이종학 5(120), 하병욱 2(360),
▶ 15기 김성언 2(515)
▶ 16기 원홍규 10(270), 이종우 2(149), 황병태 4(288)
▶ 18기 구연덕 2(118), 금용백 6(540)
▶ 19기 김익수 10(188), 이경희 2(162), 이종형 2(227), 이창호 6(546), 홍성식 1(184)
▶ 20기 김동영 10(78), 김은희 2(56), 박권순 2(137), 서정열 4(461)
▶ 21기 신철수 2(1,016), 장달수 2(97)
▶ 22기 권순태 2(42), 김면수 10(115), 이진성 2(250), 정경호 2(33), 천병규 10(400), 홍성덕 10(191)
▶ 23기 김창수 4(220), 김태일 2(220), 배요식 2(232), 신영찬 2(62), 오승욱 4(242), 정철재 4(116), 허강수 2(261)
▶ 24기 광종만 4(32), 권금락 4(264), 권오봉 2(208), 김도협 2(222), 남용구 2(254), 모경원 2(217), 박세철 2(61), 방성대 2(71), 안인준 2(84), 이문휘 2(85), 정정현 2(181)
▶ 25기 김남용 2(124), 문봉성 1(141), 손영기 4(128), 이종현 2(41), 이은전 5(35), 장광선 6(348), 장무수 2(39), 전희준 1(294), 조재희 2(113), 홍은표 1(190)
▶ 26기 고창준 10(198), 신창대 3(11), 신충인 2(177), 양성안 3(3), 유근환 2(26), 이덕우 2(116), 이완주 4(111), 이태인 4(42), 임우영 2(234), 장용빈 4(110)
▶ 27기 김덕중 2(58), 김성오 4(10), 김지덕 2(12), 김호복 8(217), 남상호 3(3), 석수열 2(35), 안병욱 2(159), 이희순 2(229),

원희문 10(195), 전태환 100(500), 정월균 2(16)
▶ 28기 권승영 1(20), 권양철 2(98), 김진길 2(70), 김창현 2(156), 박기수 2(81), 박용섭 4(153), 서청수 2(162), 유정일 2(27), 윤석찬 1(130)
▶ 29기 김강식 2(235), 김용식 2(64), 김태영 4(10), 박성훈 2(143), 박태용 2(122), 이상일 2(178), 이의규 2(105), 임성호 2(154), 최인섭 2(116), 최준호 2(10), 현태식 2(140)
▶ 30기 김중권 2(74), 김호성 2(34), 남진오 2(45), 이병길 2(9), 이진 2(139), 임상달 2(109), 주경호 2(102), 최재봉 2(6), 홍성범 2(26), 함민호 2(90)
▶ 31기 권동호 4(40), 김민식 4(78), 김영태 2(171), 김희엽 2(216), 박서호 2(10), 염향수 2(126), 이재춘 2(200), 이훈복 2(38), 최대집 2(36), 전경인 2(23)
▶ 32기 권관덕 3(302), 김화용 2(103), 송진수 3(56), 이태현 2(33)
▶ 33기 고희용 2(23), 김남식 1(152), 김상선 2(130), 김성수 1(219), 김충민 2(10), 김현규 4(369), 남석진 2(127), 노일 6(134), 안경일 2(224), 안준영 6(98), 이정표 6(47), 조재봉 2(100)
▶ 34기 권성진 2(121), 김기수 2(170), 김운성 1(33), 김홍식 6(405), 박필수 2(16), 임창훈 2(70), 정웅민 4(191), 정창근 2(96), 정준황 2(46), 조수창 2(171), 홍영기 2(15)
▶ 35기 김병수 2(68), 김수열 2(59), 권혁범 10(10), 박병준 6(278), 박상우 2(86), 박상천 5.5(11), 박시근 2(173), 송명성 4(42), 이문희 2(139), 임창규 2(97), 장춘삼 2(134), 전성광 2(27), 정영석 2(95), 정호준 4(74), 황재혁 1(17), 허중수 2(14), 한종훈 4(347)
▶ 36~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비합니다.**

한만우(3사3기), 학교발전 위한 1억원 기부 달성



한만우 기부자는 2017년 46기 졸업식장에서 모교발전기금 5천만원을 쾌척 후 1억원 기부 목표를 세우고 이후 5천만원을 20년 9월 1일부로 납부 완료하여 자신이 세운 기부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덤덤히 한통의 전화로 재단으로 알려왔다. 3사 졸업생 최초로 1억원 기부를 달성 한 한만우 기부자는 최고액을 기부 하면서도 고액기부자 초청행사를 갖자고 수차례 권하였으나 "3사관학교라는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고 후배 생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전부다." 며 극구 우행사 초청을 고사하였다. 52주년을 맞은 3사관학교가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은 한만우 기부자와 같은 겸손과 감사를 인생 덕목으로 살아가는 소 리 없는 실천가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심사 통과

2020년 9월 29일 (재)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이 기획재정부 최초로 주관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심사에서 군사관학교 장학재단 중 제일 먼저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재단정관 및 지난 5개년 사업 적법성, 국제관련 회계 및 보고절차 준수여부,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획재정부가 심사하여 통과된 단체에 한하여 6년간 기부금 모금 및 세액 공제 자격을 부여(6년 후 재심사)하는 제도로 기부금 모금 단체로서는 적법성 및 투명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심사로 군사관학교 발전재단으로 최초로 자격획득(기획재정부 고시 2020-27호)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재단 및 기금운영과 기부세액공제 서비스의 적법성을 정부로부터 검증받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지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7박조국부, 56이충성모, 00홍길동부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